

목포 원도심 골칫덩이 고물상

주민들 “4곳 밀집 소음·악취 고통” 철거 요구…市 “이전조치 어려워”

목포시 원도심내에 고물상들이 집중되어 미관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악취가 발생,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다.

현재 목포시 원도심인 삼학동 일대 미복민선과 영성씨니벌, 삼호, 동아, 성지빌라 인근에 고물상 4곳이 밀집돼 있다. 게다가 최근 또 한곳이 사업 신고를 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고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차례 운행하면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고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고물상들이 각종 큰 행사들이 치러지고 지고 있는 목포시의 대표적인 유달경기장 주변에 위치해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는 당초 지난 1986년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원도심에 학생수요가 줄어들자 지난 2006년 해지돼 개인소유자들이 임대해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성씨니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400여 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악취 등으로 청문을 열지 못하고, 이들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놓여 있다”며 “또 한곳의 고물취급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400여 가구 주민들은 ‘고물상 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고물상 즉각 취소와 삼학동 소재 고물상 3개소를 연내까지 철거해 줄 것을 시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계획이다.

시민 김영주(산정동)씨는 “도심 한 가운데 고물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도심을 살리자는 시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유달경기장 관람객들을 등 폐적한 도심을 위해서는 도심 외부로 이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세부 서에 사업자 등록신청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 현재로서 즉각 조치는 어렵겠지만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대 약대 발전 기원”

이혁영·박필선씨 천만원 기부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의과대학 유효자와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기부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이혁영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과 박필선장원F&S 대표이사가 약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회장과 박 대표이사는 총장을 만나 “단순한 일회성 발전기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목포대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대학 측도 의과대학 유효자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교총장은 “발전기금을 기부한 이혁영, 박필선 회장의 크나큰 학교사랑을 잊지 않겠다”며 “기부자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중히 사용해 학생들이 미래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오는 29일 오후 6시 목포신안 비치호텔에서 ‘약학대학 발전 및 의과대학 유효자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목포대(입학정원 25명)와 순천대를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의 약대신설을 인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진도는 지금 꽃게 풍년”

서망향, 하루 10t 위판…전국 25% 점유

최근 진도군 조도면 앞바다에 꽃게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민들이 풍어가를 물리고 있다.

20일 진도군 수협 서망사업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여척의 꽃게 잡이 통발 어선들이 적당 300~500kg의 꽃게를 싣고 와 위판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대도시로 날개 돋힌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고 있다.

서망향은 매일 10t 가량의 꽃게를 위판해 2억여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수협 위판가격은 kg당 1만~1만5000원선. 특히 꽃게어장이 형성된 조도면 독거도 앞바다는 30~40여척이 넘는 어선들이 하루에 2~3차례 통발을 던지고 걸어올리기를 반복하며 어장을 훑고 있다.

고 있지만 매번 만선이다.

조도면 독거도 해역이 ‘꽃게 황금어장’으로 거듭난 것은 꽃게가 서식하기 좋은 모래밭과 바다수온 등 좋은 어장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지속적인 단속도 꽃게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상호 진도군 수협 조합장은 “현재 진도해역에서 출하하는 꽃게가 전국 25%를 점유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순까지 꽃게가 풍어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9일부터 31일까지 ‘진도 꽃게축제’를 개최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www.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금호타운 100-7570-7525

금호타운 100-7570-7525